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Equity Crowdfunding on Job Creation

천혜숙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Hesuk Chun(heschun@gmail.com)

요약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창업기업과 신생기업들이며, 실업을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고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금조달은 창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신생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 될 수 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은 영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며, 신생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성공률과 성장률, 그리고 투자 수익성을 높여줌으로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생존율과 생존 기업들의 성장률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신생기업 생존율과 성장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은 창업 및 초기성장을 위한 자금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어 창업율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그리고 생존기업의 성장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순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됨으로 고용창출에 미치는 확실한 효과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 중심어 : |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 고용창출 | 벤처캐피탈 | 창업 및 신생기업 |

Abstract

Research about U.S. and European countries demonstrated that startups and young firms account for nearly all net job creation. If we want to bring down unemployment and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we need to create new companies and to make them to grow. Credit avail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entrepreneurs as they attempt to start or expand a business. For young firms, access to credit for business growth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survival and failure. Equity crowdfunding is an innovative means of raising capital for businesses. Crowdfunding campaigns can give new business access to a large pool of investors. This brings huge benefits for marketing and increase provability of success of business and ROI, so it leads follow-on investment from Venture Capital and Angel investors. In Korea,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and average growth rate of survivors is far lower than those of the U.S or other countries due to lack of funds for startup or early business growth. Equity crowdfunding can be a new funding source for venture or startups. It can increase startup and survival rate, in addition to the growth rate of survivors, resulting in decreased unemployment rate. In Korea, Equity crowdfunding will be available from 2016.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impact of crowdfunding in Korea on job creation will be similar to its impact in the U.S.

■ keyword : | Equity Crowdfunding | Start up | Venture Capital | Job Creation |

I. 머리말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높은 실업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업과 신생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창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생성과 성장을 돕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업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창업과 신생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창업과 신생기업의 활동과 신규고용 증가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신규 고용창출요인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미국 및 유럽 국가가 창업과 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순고용 증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의 창업과 신생기업의 성장 및 순고용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순고용 증대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의 역할과 그 기대효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현황

클라우드 펀딩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많은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27][28]. 온라인 자금조달방법은 창업 또는 소규모기업의 사업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창업 또는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의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의 기회를 넓히고자 2012년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를 만들었고 JOBS ACT II가 2013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1][28]. JOBS ACT II는 기업가들이 온라인으로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은 온라인 주식시장을 통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

2013년 9월부터, 많은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시작되었으며 실시간 클라우드 펀딩 현황을 모니터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인 Crowdfunder가 시작되었다[2]. Crowdfunder는 18개의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연결하여 실시간 자료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보고서를 출간한다[3]. Crowdfunder에 의하면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은 매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2][4].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은 2015년 1/4분기 동안 6억6천2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2014년 4/4분기에 투자된 4억8천3백만 달러보다 37%가 증가된 것이다[2][4]. 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자금을 투자 받은 분야는 금융부문으로 1억7천2백만 불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 붐이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2]. Crowdfunder's 2015년 2/4분기 보고서 역시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 2/4분기 중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을 한 기업수가 1/4분기에 비해 48% 증가하였으며, 투자자금은 17.8%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5].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이 시작된 2013년 9월부터 2015년 2/4분기까지 조달된 금액은 7억6천5백만 달러이며[6],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격을 해제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JOBS ACT III가 2015년 안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온라인 펀딩 시장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본다[6].

III. 창업 및 신생기업의 고용창출효과

1. 미국의 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

미국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기존 또는 대기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생 창업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7]. 그리고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국의 순 고용창출은 창업된 지 5년 이하의 신생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창출된 고용은 4천만 명이였다[8].

Kauffman Foundation 에서 발간한 Analysis of Census Bureau statistics 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기존 기업들은 매년 1백만 일자리를 줄여왔는데 반해 창업기업들은 매년 3백만 일자리를 창출했

다[7]. 또한 이 데이터는 2007년에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2/3는 창업기업과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10]. 따라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창업기업이 생겨야 한다고 한다[8]. 미국은 2007년부터 2009년의 경기불황 동안 약 8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2011년에는 실업자 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9]. Kauffman Foundation의 E.J.Ready에 의하면(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the Census Bureau 자료를 연구함), 2011년에 실업이 1천4백만 명으로 누적된 이유는 과거 불황 동안 창업기업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신생기업의 성장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2006년 보다 창업기업 수는 27% 하락하였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하락하여 금융 위기 전에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45-50%였으나 금융 위기로 인한 불황 후에 45%로 하락하였다[9][10]. 또한 이 연구는 2009년에 창업된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만들어낼 일자리 수는 연도별 창업기업의 일자리창출 평균보다 1백만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2009년 창업에 의해 창출돼 일자리 수는 2백만 3천으로, 평균(3백만) 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9].

Kauffman Foundation은 창업기업들의 고용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기업형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연구를 2010년에 발표하였다[11]. 이 연구에 의하면, 매년 수많은 회사들이 창업되고 또한 수많은 회사들이 퇴출되고 있지만 매년 창업된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감소함으로 결국 창업기업과 신생기업의 수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기업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창업회사와 신생회사들의 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창업과 신생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들 창업과 신생기업들은 미국의 순 고용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체기업 연평균조상, 창업과 신생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비중이 크며, 이는 구조적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11].

2. OECD 국가의 신생기업과 고용창출

OECD연구는 17개 OECD 국가들의 기업 분석 자료

를 사용하여 신생 소규모기업들이 순 고용을 만들어내며, 이런 결과는 대 불황 에서도 같은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이 순 고용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1)창업율 (전체고용에 대한 창업기업의 고용수) (2)창업기업의 생존비율(일정기간 후 퇴출되지 않은 기업의 수) (3)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수(창업 시 평균 고용인수) (4)창업 후 기업성장률(시작 년도와 마지막 년도의 고용인원 비율)의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12]. 전체 소규모기업에서 차지하는 신생기업의 비율이나 창업후의 기업 성장률은 국가별로 다소 큰 차이가 있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조사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창업 3년 후에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60%이며, 5년 후의 생존율은 50% 그리고 7년 후에는 40% 정도의 기업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3.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특징

조덕희의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OECD 국가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서 2012년 동안 창업기업은 매년 약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은 2007년 54만 명에서 2011년 45만 명 순 고용의 감소를 가져왔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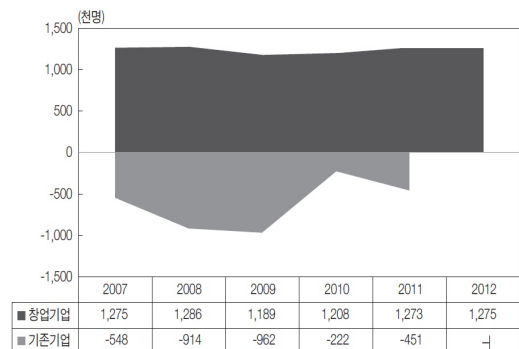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창업 및 기존기업 고용창출 추이
(소기업 포함) 자료: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창업율과 기업 활동을 유럽국가와 비교분석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율은 2010년을 기준

조사대상 유럽 20여 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창업율이 높은 만큼 폐업율도 높고 특히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약 3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20% 포인트 낮았다[14]. 창업기업의 창업율은 최근에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창업율은 2007년 9.7%에서 2012년 7.4%로 하락하였고, 기업체 수 기준으로 볼 때 창업율은 2007년에 17.9%에서 2012년에 14.3%로 점점 하락추세에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99%가 영세소기업으로서 창업기업의 성장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4].

OECD 연구에서 보여준 순 고용증대 효과는(1)창업율 (2)창업기업의 생존비율 (3)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수 (4)창업후 기업성장률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 결정요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창업율이 순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 즉 창업기업의 생존율, 기업의 성장률, 그리고 창업기업의 영세성에 기인한 평균고용인수 모두가 높은 창업율의 순 고용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IV. 미국 주식형크라우드 펀딩이 창업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일자리 창출 효과

Crowdfund Capital Advisors(CCA)는 미국 주별 크라우드 펀딩 순위를 알려주는 분기별 보고서인 “JOBSIMPACT Small Business Crowd funding Index: Best to Worst Crowd funding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를 발표하였으며, 이 인덱스는 크라우드 펀딩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15]. CCA는 JOBSIMPACT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150,000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 4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각 주마다 크라우드 펀딩 환경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부터 받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5]. JOBSIMPACT 인덱스의 순위가 높은 주는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자금조달이 타주에 비해 훨

씬 용이함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이 인덱스가 높은 주들은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개인 또는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고 볼 수 있다.

CCA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수백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인터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회사의 39%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평균 2.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48%의 회사는 새로운 채용을 더 늘리기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16][17].

2. 마케팅효과 및 기업수입효과

CCA의 크라우드펀딩 기업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판매량이 분기별 평균 351%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이 그 회사의 상품 및 기업 마케팅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16][17].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한 자금조달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에서부터 기관투자자들에게 까지 수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제품과 기업에 대해 수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18]. 대중의 피드백은 시장의 요구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활용되어 상품의 시장성과 사업의 검증수단이 되며 크라우드 펀딩 과정은 곧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유인효과

크라우드 펀딩의 추가 투자유인효과에 대한 CCA의 조사에 의하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28%의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후 3개월 이내에 엔젤 투자가나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43%의 크라우드 펀딩 기업은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논의를 하였다[16][17]. 이런 조사결과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수많은 소액주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 투자자들, 즉 엔젤 투자가나 벤처캐피탈은 이런 기업을 회피한다는 연구[19]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CCA 조사는 실제로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이미 마켓 테스트를 통과한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16][17]. 즉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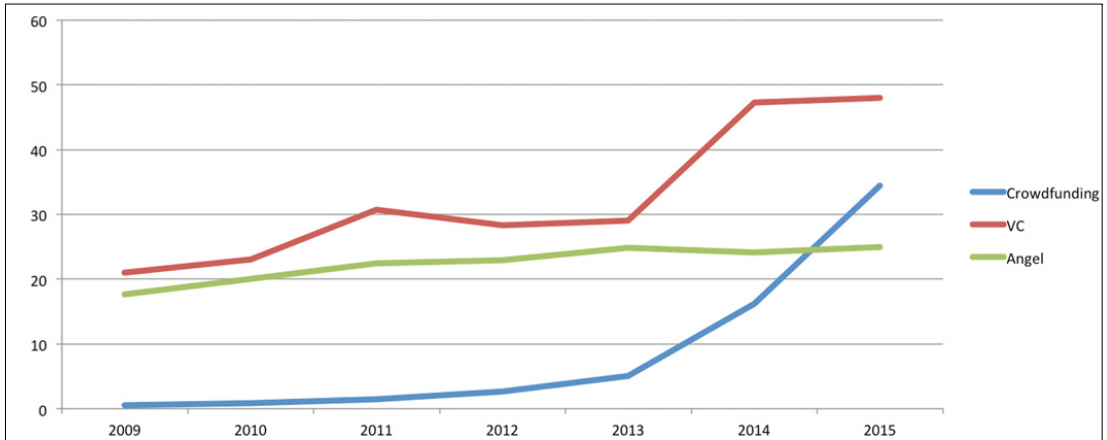


그림 2. Annual Funding(Billions):VC vs. Crowdfunding vs Angel

자료: forbes

적인 회사는 이미 많은 참여자(투자자)들이 제품품질, 기업가치 등을 좋아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추가투자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16][20].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규모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기업생존을 위한 자금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였으나, 기업수익과 담보력은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은행의 대출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그러나 경기회전 이후에도 소규모기업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21]. 따라서 창업 또는 소규모기업들은 벤처캐피털이 유일한 자금조달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 투자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해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98%가 거절되고 있다[20].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은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 투자자들에게 창업기업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선호도를 증명해 줌으로서 이들 투자자로부터 추가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 실제로 최근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이 급속한 성장을 함에 따라 벤처 기업인, 많은 창업가들이 클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고 있고, 벤처캐피털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협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18].

4. 창업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세계은행은 클라우드 펀딩 세계시장이 2020년에 9백억 불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펀딩 시장은 매년 배로 성장하고 있으며[4], 만일 매년 두 배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2017년에 9백억 불이 될 것이다. 벤처캐피털이 연평균 3백억 불의 투자 규모이고, 엔젤 투자자의 투자는 연평균 2백억 불이며, 2015년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 규모는 약 2십5억불이다. 매년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이 2배씩 성장한다면, 2020년에는 3백6십억 불이 되어, 클라우드 펀딩은 창업시장의 벤처캐피털의 투자규모를 넘을 것이다[4].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은 현재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들을 다 포함하는 온라인 투자방법으로서 벤처캐피털과 달리,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펀딩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형 클라우드 펀드는 기업가들에게 영업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투자그룹을 만나게 해주며, 벤처투자가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영업지지자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특성은 기업가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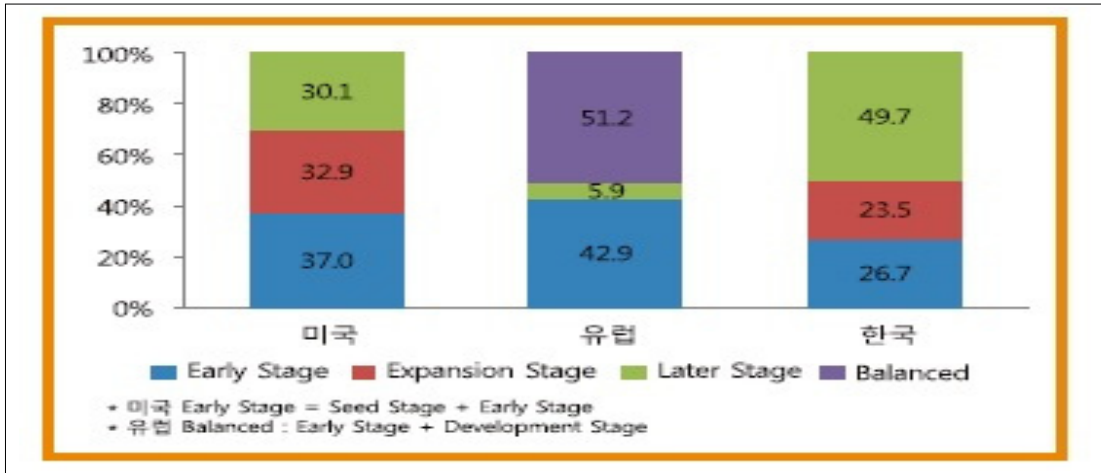


그림 3. 업력별 벤처캐피탈 비교 (2013)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V. 우리나라 창업과 신생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역할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간한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전년대비 1단계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매우 낮은 편이다[22]. 특히 기업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65위, 대출의 용이성이 120위, 벤처캐피탈 자금 이용 가능성이 107위로 나타났다. 세 가지 기업 자금조달 방법 중에서 창업과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은 대출시장이나, 벤처캐피탈 시장이 될 것이며, 두 시장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가장 핵심 자금공급원인 벤처캐피탈 투자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의 50% 이상이 기업의 후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초기의 투자비중은 27%로 타 국가에 비해 (미국: 37%, 유럽: 42.9%)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23].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초기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배경화 연구에 의하면 특히 IT기업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성장, 성숙의 사이클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해 death

valley를 넘기 위한 자금의 확보가 기업성공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리스크 회피 경향이 커서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으로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받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24].

양현봉 외 연구에 의하면, 지식, 기술 창업기업의 창업과정 및 창업실태조사에서 창업 이후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조달(44.8%)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창업초기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64.3%가 창업 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창업자금조달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창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담보부족(46.0%) 및 대출자격 조건미달(15.7%) 로서 61.7%의 창업기업이 담보 및 자격 조건의 커다란 장애로 인해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5].

OECD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 후 첫 2년의 기업 활동이 그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한 기업의 첫 2년 동안에 기업고용 성장률이 가장 높은 반면, 첫 2년에 퇴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13]. 그리고 신생기업들에 있어서 자금공급은 생존을 위한 산소공급과도 같아서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기업생존과 퇴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26].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유럽국가나 미국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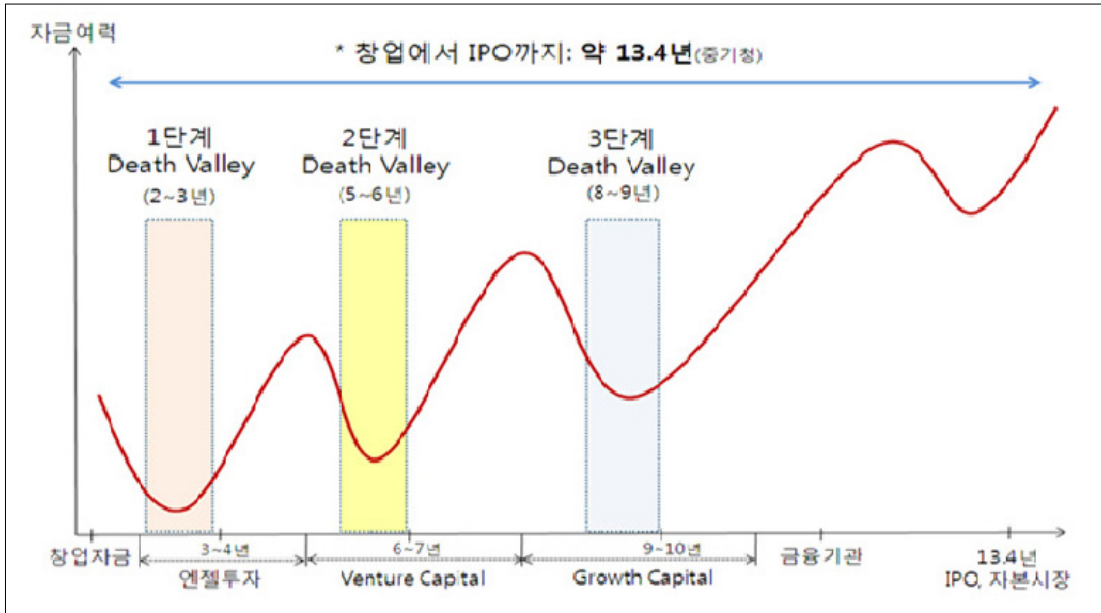


그림 4. 기업성장 생태계와 Death Valley 발생 가능 영역

자료: 산업연구원

다 10~20% 낮은 현상 과 창업기업의 성장률 부진 등은 우리나라 창업 및 신생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창업율의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 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소를 위한 창업과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이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대졸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창업과 신생기업의 주요자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미국과 유럽국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년 각국의 순고용을 증가시키는 주체는 창업과 5년 이하의 신생기업이다. 창업과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요건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기업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고용 창출은 창업기업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수록, 신생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신생기업들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상승할 것이다. 즉 전체 기업 중에서 창업과 신생기업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핵심이다.

창업과 신생기업의 성장은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의 용이성이 높아지고 또한 상품의 시장성이 확보되면 창업기업과 신생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기업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주식형 클라우드 펀딩은 창업과 신생기업을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펀딩프로세스가 기업홍보의 큰 효과를 가져다주고 상품과 기업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받는 역할을 함으로서, 펀딩의 성공은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선호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펀딩 성공후 기업수입이 크게 상승하여 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과 신생기업이 순고용을 만드는 주체이지만, 타 선진국에 비해서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

장성이 부진한 것이 특색인데, 이는 창업과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창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과 신생기업의 성장을 도움으로서 순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됨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고용창출에 대한 보다 확실한 효과는 향후 추가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K. Kay, "Equity Crowdfunding at year one, what's the impact?," <http://www.forbes.com>, 2014(9).
- [2] Z. Andrew, "Equity crowdfunding hits \$662 million in 2015," <http://www.cnbc.com>, 2015(4).
- [3] The CNBC Crowdfinance 50 Index, <http://www.cnbc.com>, 2015(2).
- [4] B. Chance, "Trends show crowdfunding to surpass VC in 2016," <http://www.forbes.com>, 2015(6).
- [5] Crowdnetic's Q2 report: the Industry Continues to Grow, <http://www.crowdnetic.com>, 2015(6).
- [6] R. Michael, "Who need Equity Crowdfunding? Critical Questions about Title III of the JOBS ACT," <http://www.forbes.com>, 2015(4).
- [7] W. Vivek, "Why Andy Grove Is Wrong About Job Growth," <http://www.bloomberg.com>, 2010(7).
- [8] F. Thomas, "Start-Ups, Not Bailouts," <http://www.nytimes.com>, 2010(4).
- [9] M. Lucia, "Business starting smaller, creating fewer jobs: study," <http://www.reuters.com>, 2011(7).
- [10] S. Dane, "Where will the jobs come from?," <http://www.kauffman.org>, 2011(4).
- [11] Neutralism and Entrepreneurship: The Structural Dynamics of Startups, Young Firms, and Job Creation, 2010(9).
- [12] F. Calvino, C. Criscuolo, and C. Menon, "Cross-country Evidence on Start-up Dynamic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2015(6).
- [13] O. Jonathan, "Deconstructing Job Creation from Startups," <http://www.kauffman.org>, 2015(8).
- [14] 조덕희,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32, 산업연구원, 2014(12).
- [15] The First JOBSIMPACT Small Business Crowdfunding Index Released, <http://crowdfundcapitaladvisors.com>, 2014(10).
- [16] C. Cheryl, "New Report: The ROI Of Crowdfunding," <http://www.forbes.com>, 2014(1).
- [17] "How does Crowdfunding : Impact job creation, company revenue and professional investor interest?," Crowdfund Capital Advisors, 2014(1).
- [18] "크라우드펀딩의 8가지 새로운 트렌드," <http://www.crowdri.org>, CROWDRI, 2015(4).
- [19] "Crowd funding and Job Creation," <http://billpayne.com>, 2011(12).
- [20] "The Benefits of equity crowdfunding," <http://www.sterlingfunder.com>, Sterling Funder, 2012(4).
- [21] M. Karen and M. Brayden, "The state of Small Business Lending: Credit Access during the Recovery and How Technology May Change the Game," Working Paper 15-004, Harvard Business School, 2014(7).
- [22]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4-2015 분석, 조사자료 2015-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 [23] "창조경제와 벤처캐피탈." GRI Trends in perspective, 경기개발연구원, 제58호, pp.2-3, 2014(7).

- [24] 배경화, “IT 중소기업의 투자재원으로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활용방안에 대한 소고,”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p.1-12, 2013(7).
- [25] 양현봉 외, 여성 지식기술 창업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4-697호), 산업연구원.
- [26] L. Rieva, “Guess Who’s Creating the most U.S. Jobs. It’s likely not who you think,” <http://www.smallbiztrends.com>, 2009(11).
- [27] 이정은, 신현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가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6, pp.54-62, 2014.
- [28] 천혜숙, “창의적 프로젝트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5, pp.560-569, 2015

저 자 소 개

천 혜 숙(Hesuk Chun)

정회원



- 1978년 2월 : 연세대학교 이학사
- 1993년 5월 :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학석사
- 2000년 5월 : 조지워싱턴대학 경제학박사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금융시장, 자본시장